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

한 젊은 남자가 오른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다. 그리고 왼 손에는 자신이 잘라버린 한 사내의 머리를 허무한 표정을 지으며 연민의 정을 담아 지긋이 내려다 보고 있다. 어두운 배경의 연극의 무대같은 조명 효과는 칼을 들고있는 오른 쪽 어깨 부분을 어둡게 하여 범행을 숨기고 있다.

한밤의 살인현장은 프래쉬를 터뜨려 찍은 호러 영화의 스틸 컷같이 괴기스럽기까지하다. 이 섬뜩한 그림은 승리자로서의 오만함이 전혀 없어 보인다. 머리가 잘려진 사내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듯하다. 그러나 초점 잃은 눈동자와 반쯤 헤벌어진 입의 모양새에서는 영혼없는 자의 불길한 기운과 함께 인생의 허망함이 물려온다.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바라지오 (1573-1610)라는 화가의 마지막 작품이다. 16세기 르네상스 전성기에 미켈란젤로라는 걸출한 조각가가 이미 이름을 한 세대 전에 선점한 바람에 그의 이름은 그의 출생지 명인 카라바지오로 불리우게 된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카바라지오는 성격이 매우 거친데다가 술을 많이 마셨고 주체할 수 없는 폭력적 성향으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을 수시로 들락거렸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화가로서의 천재적 재능은 그의 범죄조차 묵인해 줄 정도였다. 그러나 잘나가던 화가로서의 삶은 사소한 일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어 후원자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형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도망가는 곳마다 지역의 유지들이 그의 탁월한 재능을 알아보고 많은 작품을 의뢰한 덕에 예술혼을 불태우며 잠시 도망자의 고단하고 피곤한 행각을 잊기도 했다.

명암의 극적인 대비와 어둠에서 빛나는 오브제의 묘사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활약을 표현한 바로크 미술에서도 발군이다. 데생없이 바로 캔버스에 페인팅을 바로 시작할 정도로 천재인 카바라지오는 가는 곳마다 작품을 남겼고 그것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당대의 기법을 뛰어넘는 대담한 묘사와 표현은 너무 세속적이고 리얼하여 작품을 의뢰한 성당에서조차 작품 반입을 거부할 정도였다.

서양미술사의 바로크라는 한 사조를 이끌며 후대 작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카라바지오이지만 엽기적 사생활과 사이코패스적 행각은 계속된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의 실제 생애는 '빛과 어둠'이라는 극한적 대비 속에서 오락가락 했다. 그러나 선악을 초월(?)한 불굴의 예술적 재능이 없었다면 굴곡의 인생살이를 감당치 못했을 것이다.

아래 소개된 그림은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으로 천하무적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표현했다기 보다는 죽은 골리앗에 대한 측은지심이 더 표출된 듯 하다.

사실상 이 그림은 살인죄로 도망자로 살던 카라바지오의 자화상이다. 특이하게도 칼을 든 젊은이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고 잘린 골리앗의 머리도 현재의 자신의 초상이다. 소위 이중 자화상이다. 교황청의 사면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교황께 바치는 그림의 주제를 다윗과 골리앗으로 잡고 자신의 일생을 회개하는 의미로 양자의 모습을 자신의 얼굴로 치환한 것이다. 이미 교황청에서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는 로마 교황청에 가지도 못한 채 시라쿠사 해변에서 객사하고 만다. 그의 나이 38 세였다.

카라바지오는 17세기 바로크미술을 연 장본인이다.

르네상스(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등)의 이상적으로 그려진 전대의 그림에 대항하듯 '키아로스 쿠로'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시켜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 역동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관람자의 집중도를 높이고 감동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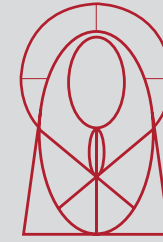
그의 독창적이고 사실적 작품들의 예술사적 가치는 르네상스의 미켈란젤로에 버금간다.

그림 속에 다윗이 들고 있는 칼에는 라틴어로 '겸손이 오만을 이긴다'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그의 기구한 짧은 생애 동안의 모든 회한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리라!

글/김웅배 안드레아



작가: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바라지오
크기: 125cmx101cm 캔버스 유채
소재지: 이태리 로마 보르게세 미술관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연중
제 6 주일
2023년
02월 12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성 바오로딸 수도회 김옥순 수녀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집회서15,15-20
- # 화답송 시편 119(118),1-2,4-5,17-18,33-34(© 1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2,6-10
- # 복음 환호송 마태 11,25 참조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복음 마태오,5,17-37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 # 성가 입당 329 봉헌 216 성제 172 파견 34

✿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썸머셋 구역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백창래, 전호성 - 전광수(프란치스코)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백상현(요셉) 가정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오경선(원선시오) - 손종철(안드레아) 가족
- 곽 율리아나 - 손종철(안드레아) 가족
- 김민욱(어스틴) - 성낙순(미카엘라)
- 이막동(아네스) - 성낙순(미카엘라)
- 성낙순(미카엘라) - 가족
- 김소민(카타리나) - 이보현(요안나)
- 박규희(루시아) - 채미영(데레사)
- 김순옥(율리아) - 채미영(데레사)
- 최현지(안토니아) - 채미영(데레사), 한지혜(크리스티나), 소나영(안나)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54명)..... \$1,628
- 교무금..... \$2,810

염기선(2)	박락준(2)	손종철(1-3)
최완준(1-3)	황분숙(1-4)	이재서(1-6)
임문수(2)	박병태(2)	이용문(2)
배인경(1-3)	허종(2)	전준성(1-2)
박화성(1-6)	민규란(1-6)	최영옥(2)
- 감사헌금, 이재구..... \$100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 |
|------------|-----------|
| 정영철(프란치스코) | 하건철(안토니오) |
| 오용덕(헨리코) | 오경선(원선시오) |
|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태오) |
| 박화성(헬레나) | 곽 율리안나 |

✿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 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 Rosary Altar Society 주관 Gertrude Hawk 캔디 세일

- 캔디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당 입구에 비치된 주문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주문 마감 및 문의: 2월 19일(주일), 사무실 (732-356-1037)

✿ 2차 헌금

- 2월 12일: 유틸리티

✿ 2023년 2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2월 22일 오전 9시 영어 미사
- 2월 22일 오후 6시 Prayer Services & Distribution Ash
- 2월 22일 저녁 8시 한국어 미사

✿ 성지 가지 수거

- 오는 2월 22일(수요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보관중인 성지가지는 2월 19일(주일) 까지 성당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사순시기동안 주일 미사 시작 30분 전인 11시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제대초 기름을 봉헌해 주신 정데레사, 이서형(요안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신부님과 첫 사목회의를 개최하오니 사목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2월 12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반석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8일 (토)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 정 마이클 형제님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 이스트브런스워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먼로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노스에디슨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피스브릿지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2월 19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소회의실

✿ 마태오 5,17-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열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제 1독서 집회서15,15-20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2,6-10

형제 여러분,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마태 5, 23-24)

바오로말문안츠